

청년과 중년의 가족 개념 비교분석

-가족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 영 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박 경 란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개념 인식을 가족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가족개념 인식의 관련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가족개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청년과 중년 각 250명), 질적(청년과 중년 각 40명)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조사된 항목 가운데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자녀 없는 부부' 이었으며, 반면 가족인식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이혼한 부부'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개념 인식에 관련되는 요인은 혈연성, 공동거주, 부모지위, 결혼지위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관점의 가족개념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그러나 청년과 중년의 가족개념 인식의 비교결과, 중년 세대는 청년 세대에 비해 가족의 범위를 혈연성이나 부계친에 국한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청년 세대는 무자녀, 비혈연, 별거, 입양아, 모계친 등 비교적 최근에 변화한 가족유형을 수용하는 정도가 중년 세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개념에 대한 인식이 고정화된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다수는 여전히 혈연성과 공동거주 여부를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은 이전에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범위까지도 가족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 폭이 넓혀져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 기준을 둔 개념은 교육을 통해서 그 범위를 넓혀야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개념 인식에 세대별, 성별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가치관이 가족 개념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년과 청년, 남성과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들간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반되어 이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갈등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여러 가족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